

현안과 과제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1. 휴일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대두

○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과 내수활성화 논의

-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함께 겹치면 평일 중 하루(일반적으로 월요일)를 쉬게 하는 제도임
 -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기 보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임
 -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3일, 2012년 기준으로 5일, 2013년 기준으로 3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함¹⁾
- 지난 6월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최근 대체휴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 대체휴일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휴일을 매개로 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유통업이나 여행업 등 연관 산업의 매출이 향상되었으며, 휴일 정책의 내수 활성화 효과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 높다는 의견도 많음
- 반면, 국내 기업들은 휴일을 임금 상승이나 생산 손실 등과 같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함
 - 그러나 휴일을 잘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 또한, 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가 진작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본도 휴일을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의 주요한 방법으

1) 연간 공휴일 14일 중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일수임

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경우 2주에서 6주 정도의 장기 휴가와 5일에서 7일의 장기 연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여 소비 활성화를 모색함

○ 휴일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재충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에 매몰되는 근무 형태로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
 - 선진국의 경우 휴일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며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의 가치관도 과거와는 달리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상 삶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시간당 GDP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근로자들의 현실도 고려해야 함
 -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능력 개발 기회 저해 등으로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휴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OECD 회원국의 연평균 근로시간 및 노동시간당 GDP(2009년 기준) >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노동시간 (시간)	1,681	1,714	1,646	1,554	1,390	2,232
노동시간당 GDP (달러)	56.8	38.2	45.8	54.7	53.1	25.2

자료: OECD.

-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함

2. 대체휴일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조사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
 -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주일간이었고, 전화설문으로 표본 오차는 95%(±3.1)임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9명
조사 기간	2011.7.1 - 2011.7.8(일주일 간)
조사 방법	전화 설문
표본 오차	95% ±3.1%

1) 대체휴일제에 따른 예상 여행 지출 비용 추정

-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사용하게 될 여행 총지출 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됨
 -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여행 총지출 비용은 국내 휴가자 총수와 일인당 평균 휴가 비용, 그리고 여행 횟수별 비율(각각의 비율)와 여

행 형태별 비율(각각의 비율)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은 국내 휴가 여행 하루를 즐기기 위해 일인당 평균 약 7.5만원²⁾을 사용함
- 전체 국민 중 대체휴일을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약 70%인데, 이들 중 3번의 대체휴일이 발생할 경우 약 54%가 1회, 약 29%가 2회, 약 17%가 3회를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고 함³⁾
- 당일 여행자 중 약 68%가 1회, 약 23%가 2회, 약 9%가 3회의 휴가 여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1박2일 여행자 중 약 57%가 1회, 약 30%가 2회, 약 13%가 3회의 휴가 여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2박3일 여행자 중 약 49%가 1회, 약 28%가 2회, 약 23%가 3회의 휴가 여행을 예상하고 있음⁴⁾
-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대체휴일을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의 의향을 실제 소비로 환산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금강산 관광 수요예측 조사'에서 사용했던 보정지수를 활용했음⁵⁾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지출 비용 추정(억원)>

구 분	당일여행	1박2일	2박3일	합 계
1회 여행자의 경우	245	3,745	3,590	7,490
2회 여행자의 경우	175	3,920	3,990	8,085
3회 여행자의 경우	105	2,590	4,900	7,595
합계	525	10,255	12,390	23,170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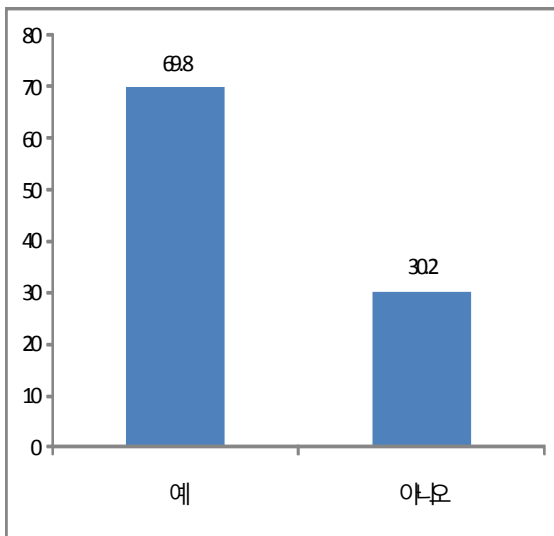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의 경우 일인당 휴가비용은 평균 20.2만원, 평균 휴가 일수는 2.7일로, 하루 휴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평균 7.5만원임
 3)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4)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5) 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 관광 수요예측 조사(1999년)'

2) 대체휴일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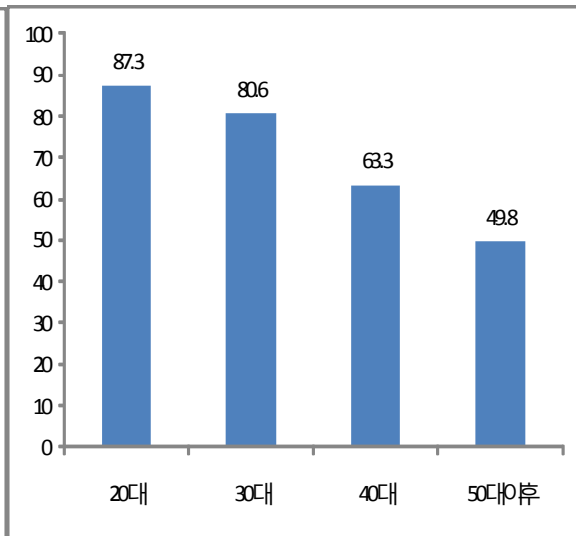
○ 대체휴일제를 통한 내수활성화의 가능성이 높다

- 대체휴일을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 약 70%
- 우리 국민 중 대체휴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은 약 70%에 이룸
 -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 69.8%, 그렇지 않겠다는 사람은 30.2%로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2/3보다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3%, 30대 80.6%, 40대 63.3%, 50대 이상 49.8%로 나타나 20대가 휴가 여행으로의 활용에 적극적임

<대체휴일의 휴가 활용 여부>



<연령별 활용 여부>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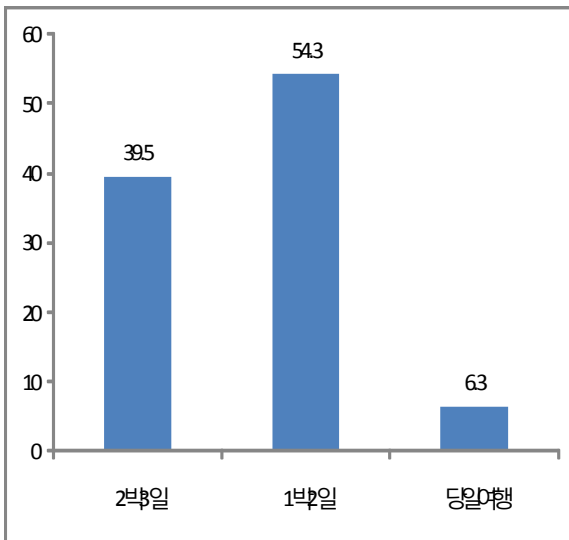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 중 3/2 이상이 대체공휴일제를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대체공휴일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함
 - 다만, 비취업 인구가 많은 50대 이상의 경우 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40대의 휴가 활용 계획이 20대와 30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은 이들의 소비 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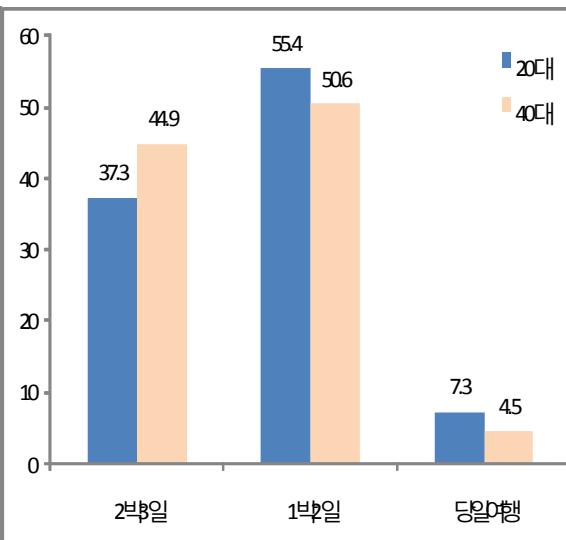
○ 대체공휴일은 당일 여행보다 1박 2일 여행으로 활용

-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은 당일 여행, 2박3일 여행, 1박2일 여행 순으로 여행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당일 여행은 6.3%, 2박3일 여행은 39.5%, 1박2일 여행은 54.3%를 선택해 대체휴일이 발생할 경우 1박2일 여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1박2일이 55.4%, 2박3일이 37.3%인 반면, 40대의 경우 1박2일이 50.6%, 2박3일이 44.9%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20대보다 2박3일을 좀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임

<대체공휴일 발생 시 선호 여행 일수>



<연령별 선호 여행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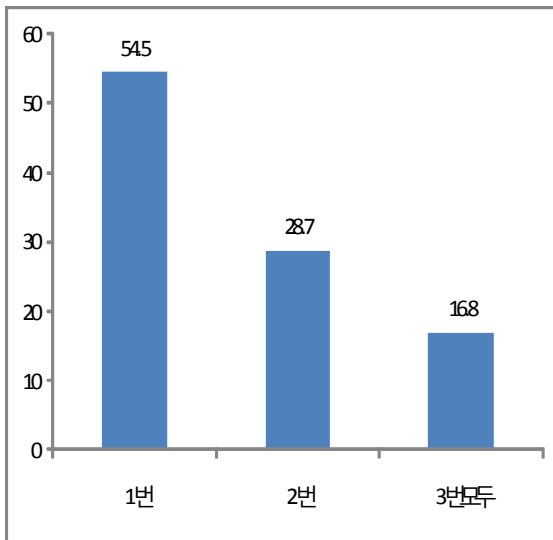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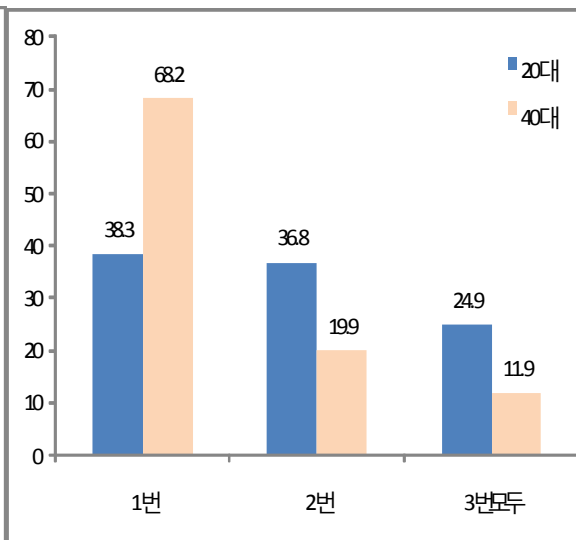
○ 대체공휴일이 3번 발생시 54.5%는 여행을 한번 떠날 것으로 예상

- 대체공휴일이 평균 3번 정도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이를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들 중 54.5%는 한번 정도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됨
 - 3번 중 2번 여행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8.7%, 3번 모두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16.8%에 이룸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3번 모두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약 25% 정도이나 40대의 경우 한번이 가장 많고(68.2%), 3번 모두 가겠다는 사람은 약 12%에 불과함
- 다만, 40대의 경우 대체휴일 3번 중 1회만 여행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여행 일수는 2박3일을 선호함
 - 짧은 여행이지만 자주 여러번 가고 싶어하는 20대에 비해 40대의 경우 한번을 가더라도 여행을 길게 즐기고 싶어하는 성향을 유추할 수 있음

<대체공휴일 발생시 여행 횟수>



<연령별 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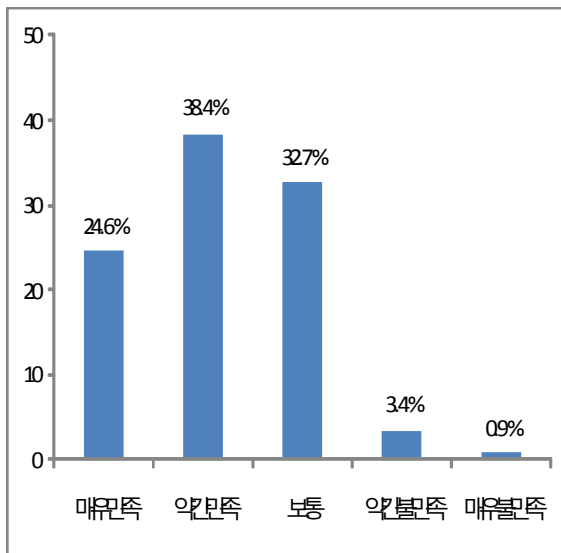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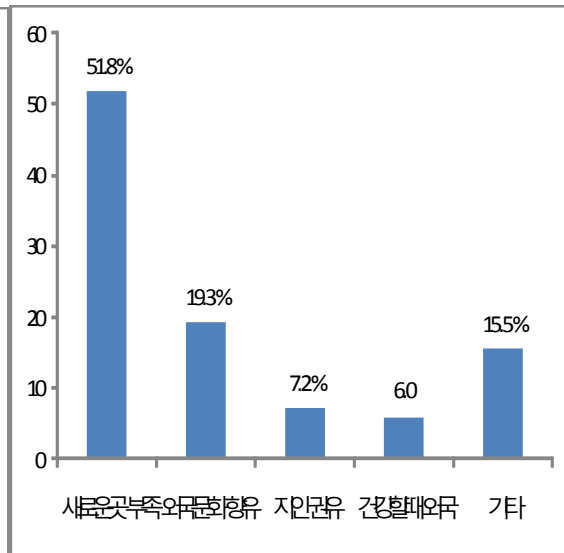
○ 휴가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국내에 새로운 볼거리 부족하다고 생각함

- 일반인들의 휴가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국내에 새로운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휴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3.0%(매우만족 41.0%, 약간만족 38.4%)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3%(매우불만족 3.4%, 약간불만족 0.9%)에 불과함
 - 다만, 일반인들이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국내에 새로운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과반수가 넘는 51.8%가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을 하는 이유로 새로운 곳 부족을 들었고, 외국문화 향유(19.3%), 지인 권유(7.2%), 건강할 때 외국 여행(6.0%) 순으로 나타남

<휴가 여행에 대한 만족도>



<해외 여행을 하는 이유>



*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3. 시사점

- 첫째, 휴일을 여행으로 활용할 준비가 된 소비자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휴일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일반 국민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휴일을 충분히 활용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내수,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휴일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둘째, 당일 여행보다 숙박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지 개발에 노력해야 함
 -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레저 시설은 당일 여행에 적합한 장소가 많고 숙박 여행을 대표할만한 시설들은 많지 않음
 - 따라서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대표적인 레저 시설과 숙박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레저 파크 기획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셋째, 20대와 40대 등 각 연령층의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짧지만 여러 번의 여행을 원하는 20대와 한번에 길게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40대의 취향에 맞추어 각자에 적합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 예를 들어 20대를 겨냥하여 체험 시설 등을 매개로 한 테마 휴가지를 개발하고, 40대에는 릴렉스가 가능한 휴양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임

- 넷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볼거리나 장소의 발굴 등을 통해 해외 여행자들을 국내 여행자로 전환시켜야 함
 - 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휴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람들이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 여행을 선호한다면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특히, 해외 여행자는 지출 비용도 많으므로 이들을 적극 공략하여 그들이 국내 여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국내에 새로운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고소득자, 고학력자를 위한 맞춤형 휴가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HRI**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